

한강 공원 인근 배달식당 때아닌 호황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며 오프라인 매장의 분위기는 침체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배달 위주로 영업을 하는 매장은 호황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식당 영업이 9시로 제한되자 한강공원 등 야외 공간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사진=SBS화면 캡처

17일 '한국경제TV'가 앱 시장 분석업체 와이즈앱의 자료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올해 8월 배달앱을 통한 결제금액은 1조 2,050억 원에 달했다. 특히 공원, 해변을 비롯한 야외 지역 배달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수익형부동산 연구개발기업 상가정보연구소가 SK텔레콤 지오비전 통계를 분석한 결과 7월 기준 여의도 한강공원(반경 800m) 일평균 유동인구는 44만 7,746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일주일 평균 약 313만 명이 방문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인근지역 배달업체의 매출도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7월 여의도 공원 인근 치킨 매장 월평균 추정 매출은 5,518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영등포구 치킨 매장 월평균 매출 2,950만원 대비 2,566만원 높은 매출이다.

1회 결제 시 평균 추정 결제금액도 3만9,401원으로 영등포구 평균 2만9,597원 대비 9,804원 높았다.

연령별 추정 매출은 40대가 32.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30대(30.5%) ●20대(17.4%) ●50대(15.7%) ●60대 이상(3.8%) 순이었다.

상가정보연구소의 조현택 연구원은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의 영향으로 야외 활동을 하는 사람이 급증해 여의도 한강 공원은 많은 방문객들로 붐빈다."며 "이는 인근 배달업체를 비롯한 텐트 대여 업체 등의 업체는 때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전했다.

상가정보연구소의 조현택 연구원은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의 영향으로 야외 활동을 하는 사람이 급증해 여의도 한강 공원은 많은 방문객들로 붐빈다."며 "이는 인근 배달업체를 비롯한 텐트 대여 업체 등의 업체는 때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 급감



▲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했다. 사진은 서울 반포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타운뉴스DB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했다. 일부 자치구는 전월대비 90% 이상 거래량이 줄었다.

18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은 이날 기준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매매된 아파트 거래 건수는 554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강남구 거래량은 20건에 그쳤고, 서초구(19건)와 송파구(16건)는 이달 들어 거래량이 하루 한 건 수준에 불과했다. 광진구(7건) 종로구(4건) 중구(4건) 등은 거래량이 10건 미만이다.

이달 말 추석 연휴를 고려하면 월간 거래량이 1,000건을 밑돌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가 이 통계를 집계한 2006년 이후 월간 시내 아파트 거래량이 1,000건 미만인 경우는 없었다. 역대 월간 거래량이 가장 적었던 시점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본격화된 2008년 11월로 1,163건이었다.

정부가 과열된 시장을 억제하기 위해 규제지역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고, 법인과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대폭 늘리면서 신규 거래가 성사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됐으며, 최근까지 아파트 값 오름세가 진정되지 불안심리에 수요자들이 내집마련 시점을 앞당긴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수도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도 현장 거래를 위축시킨 요인으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서울아파트 거래 시장이 관망세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법인이 내놓은 매물이나 내부자 특수거래 등 시세보다 수익원 낮은 급매도 일부 있지만, 신고가 거래도 적지 않고 호가를 높인 매도자도 있는 만큼 시장 상황을 신중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화예술저작권 무역수지 첫 흑자

올해 상반기 한국의 문화 예술저작권 무역수지가 사상 처음으로 흑자를 나타냈다. 방탄소년단(BTS) 신드롬이 이끄는 K-팝 인기로 K-드라마, K-시네마 등 신한류 열풍 덕택이 분석이다.



▲ KBS 드라마 '굿 닥터'의 한 장면. 미국 ABC에서 리메이크했다. 사진=KBS

18일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이날 '2020년 상반기 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상반기 저작권 무역수지는 10억4,000만 달러 흑자로 지난해 상반기(7억4,000만 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반기 기준 역대 최대 흑자 규모다.

수출 게임, 데이터베이스 등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 수지가 9억7,000만 달러 흑자로 1년 전보다 흑자 규모가 커진 데다, 문화예술저작권 수지가

8,000만 달러 흑자를 내면서 사상 첫 흑자 전환에 성공한 영향이다. 문화예술저작권 수지에는 K팝과 K드라마, 영화, 문학작품 수출 등이 포함된다.

한은 관계자는 "국내 온라인 게임 수출이 늘고, 광고회사에서 사용한 영상이나 음향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이 줄어들면서 저작권 수지가 개선됐다."며 "한류의 영향도 있을 텐데 정확히 그 정도가 얼마인지 분리해낼 수는 없고 K드라마 영상 수출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전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7억5,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8억8,000만 달러)에 비해서는 적자 규모가 축소됐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프로디 관련 상담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박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